

새로 나온 책

# 늪고 병드는 것, 불행하지만은 않은 곳

최근 KBS 방송 스페셜을 통해 '주문을 잊은 음식점'이란 코너가 방영됐다. 치매를 앓는 노인들이 서빙을 보는 식당이다. 햄버거를 시키면 만두가 나오고, 김치찌개를 시키면 된장찌개가 나오는 식당. 그러나 손님들도 이곳에선 좀더너그러워진다.



주문을 틀리는 요리집

오구니 시로 지음/김윤희 옮김/웅진 지식하우스

일, 요리점을 꾸려 나간 과정들이 쓰여졌다. "역할을 가진다는 것이 사람을 이토록 빛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눈 앞에서 한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을 보며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틀릴지도 모르지만 부디 이해해 주세요, 이런 콘셉트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아내에게 있어서 틀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겠지요" '실수는 괴로운 것'이다.

그러나 크게 문제될 것 없는 실수를 가볍게 수용하고 즐기는 요리점은 늪고 병드는 것이 더 이상 불행하거나 외롭지만은 않은 곳으로 만들었다.

232쪽, 1만4000원 /오진희 기자 valere@

우리 부모가, 나중에 내가, 누구라도 나 이 먹으면 치매에 걸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점, 치매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닌 관용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사는 세상을 훨씬 더 잘 작동하게 한다는 점을 따뜻하고 감동어린 에피소드들로 비추고 있다.

사실, 이 코너의 원작은 일본 NHK방송의 '주문을 틀리는 요리집'이다. 이 방송국 피디(PD) 오구니 시로는 어쩌다 취재를 가게 된 간병시설에서 예정된 메뉴가 아닌 엉뚱한 음식을 받아보는 경험을 한 후, 치매 어르신들을 직원으로 꾸려 식당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자, 전 세계 150여 개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참여와 기부 문의가 쏟아졌다.

오구니 피디가 이 특별한 프로젝트의 여정을 담은 책이 한글로 번역돼 최근 출간됐다. '주문을 틀리는 요리집'에서 생긴

더 걸 비포

JP 델레이니 지음/이경아 옮김/문학동네



더 걸 비포(전에 살던 여자)'는 완벽하지만 많은 것을 감수해야만 살수 있는 집에서 일어나는 심리스릴러다. "사람들은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달성하는 걸 도와줄 어떤 방식, 장소, 혹은 식습관이 존재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소설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지나치게 따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자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책을 소개한 바 있다. 508쪽, 1만5000원 /오진희 기자

서른, 결혼 대신 야반도주

김맛자, 위선임 지음/위즈덤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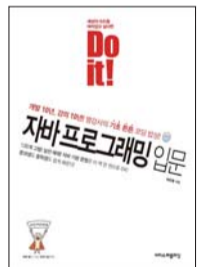


나이 서른, 10년 지기 두 여성이 24개국 97개 도시를 718일간 여행하며 세상과 부딪친 유쾌하고 눈물나게 치열한 분투기다. 사회생활 5년차, 대책없이 떠난 여행길에서 만난 행복의 작고 소중한 순간들이 그려져 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르느라 정작 살피지 못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행하고 돌아와 현재를 즐기고 있는 두 사람.

444쪽, 1만4800원 /오진희 기자

자바 프로그래밍 입문

박은종 지음/이지스퍼블리싱



비전공자, 문과생에게도 공부할 맛을 내게 하는 프로그래밍 공부 입문서다. 초보자에게 어려울 수 있는 개념들을 135개 그림으로 쉽게 풀어 설명한다. 자바가 실제 현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실전형 240개 예제도 담았다. 특히 머리 뿐 아니라 손이 자바 문법을 기억하게 할 만큼 체계적인 복습도 설계돼 있다. 자바학습 노하우를 담은 무료 동영상 강의도 제공한다. 596쪽, 2만5000원 /오진희 기자

# “모바일로 ‘아시안게임’ 관람해요”

SK브로드밴드 '옥수수' HD 중계·클립 서비스 등 제공

KT '올레 tv·올레 tv 모바일' 다시보기 무료제공·특집관 운영

LG유플러스 'U+비디오포털' 실시간·하이라이트 등 자유시청



KT 홍보모델이 아시안게임 경기 중계를 홍보하고 있다.

/KT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의 생중계를 지상파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도 볼 수 있게 됐다. 이동통신 3사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경기 생중계를 제공한다. 타사 고객들도 동영상 서비스에 가입하면 별도의 이용료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은 45개국 회원국에서 1만1300여명 선수가 참여해 40개 종목에 걸쳐 465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아시아 최대 축제다.

12일 SK브로드밴드는 자사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를 통해 오는 15일 대한민국 축구 경기(바레인전)부터 내달 2일 폐막식까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생중계 및 클립 서비스를 통신사 상관 없이 누구나 무료로 제공한다.

옥수수는 지상파 방송사와 아시안게임 중계권 계약을 맺고 아시안게임 경기를 풀 고화질(HD)로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실시간 방송이 끝난 뒤에는 하이라이트와 명장면 클립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포털 네이트와도 손잡고 아시안 게임 전용관을 구성해 대회 일정과 함께 실시간으로 경기 결과와 순위 등 대회 상세 정보 제공할 예정이다.

KT도 지상파와 중계권 계약을 맺고 올레 tv와 올레 tv 모바일을 통해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경기를 실시간 중계 및 다시보기(VOD) 서비스로 무료 제공한다. 특히 올레 tv 모바일은 고화질 생중계를 비롯해 경기 하이라이트와 아시안게임 뉴스 등을 한데 모은 '아시안게임 특집관'도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모바일TV 서비스 'U+비디오포털'에서 아시안게임 실시간 경기, 하이라이트 등을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모바일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했다.

이동통신3사 모두 아시안게임 시청자를 잡기 위해 이벤트 프로모션도 시행한다.

SK브로드밴드는 아시안게임 개막 이

전에 대한민국 응원 댓글 이벤트를 시작으로, 개막 이후 대한민국 주요 경기를 선정하여 해당 경기와 관련된 퀴즈를 출제하고 답변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또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하이라이트 및 명장면 등 클립을 가장 많이 시청하는(시청시간 기준) 고객 1등~200등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KT 또한 내달 2일까지 올레 tv 모바일에서 이벤트 응모 후, '2018 아시안게임' 생중계와 다시보기 VOD를 1회 이상 시청하면, 추첨을 통해 총 2018명에게 BHC 치킨세트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V포인트를 증정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벤트 메뉴에서 아시안게임 경기 실시간 중계와 경기 하이라이트를 시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미러리스 카메라, 스포츠 의류, 외식상품권을 준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cu.co.kr

# 휴가지 맛집 관광객들만 '복적'

SK텔레콤 'T맵' 데이터 15억건 분석  
여수·강릉 맛집 현지인 3~7% 불과

휴가지의 유명 맛집은 관광객들만 복적일 뿐, 현지인들은 관광객이 몰리는 곳을 피해 '현지인 맛집'을 찾아간다는 속설이 확인됐다.

SK텔레콤은 'T맵'의 총 15억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산과 여수·제주·전주·강릉 5개 도시를 대상으로 음식점 월방문자를 분석해본 결과, 관광객 점유 비율이 최대 97%(현지인 비율 3%)에 달하는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많이 알려진 유명 음식점을 중심으로 관광객 몰림 현상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로 차이는 존재하나 관광객이 몰리는 식당과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식당은 다르다는 속설이 'T맵'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SK텔레콤은 기업 블로그인 SKT인사이드에 조사자료 중 '지역별 주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을 공개했다. 향후 이를 확대해 '맛집'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음식문화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관광객들이 찾는 식당과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식당이 따로 있다는 점이 'T맵' 데이터를 통해 확인됐다. 조사에서는 'T맵'으로 길안내를 요청해서 끝까지 주행해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에만 방문으로 인정했다.

지역별로 볼 때 여수와 강릉의 경우 'T맵'을 이용해 찾은 인기 음식점 상위 1~10위에서 현지인 점유율이 3~7%에 불과했다. 즉 음식점을 찾은 차량단위 방문객

100명 중 현지인은 3~7명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제주와 전주의 경우에도 일부 유명 음식점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몰리는 '쏠림' 현상은 마찬가지로 관찰됐다.

SK텔레콤은 이번 분석에서 'T맵'내에 주 활동지역을 산출하는 로직을 이용해 주 활동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 음식점을 찾아가는 경우는 '관광객', 주 활동지역내에서 음식점을 찾으면 '현지인'으로 분류했다. 이후 총 15억건의 'T맵'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음식점을 찾고 직접 방문한 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대상으로 이들의 관광객·현지인 여부를 구분했다.

/김나인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46 | 해질 / 19:28

8월 13일  
음력 : 7월 3일

수도권 날씨 36~27°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25/35, 동두천 25/36, 가평 23/35, 양평 25/36, 용인 26/36, 평택 26/36, 수원 26/36, 인천 27/35, 서울 27/36, 파주 25/35, 백령도 25/3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 앵초

비바람 땀벌에도 삶의 꽃대를 끈게 세웠나니  
척박하다 닳하지 말자

/고흥근 작

## 내달 8일부터 '가가례'展 전통·현대 제사상 등 전시

종가에서 아파트까지, 집집마다 다른 제사문화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오는 9월 8일부터 열린다. 재단법인 아름지기가 기획한 '가가례(家禮) : 집집마다 다른 제례의 풍경'展(展)이다.

전통적 생활방식과 관념이 달라짐에 따라 제사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제사 시간의 변화나 제사를 지내는 횟수, 그리고 소가족화나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제사 음식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전시는 오는 9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통의동 아름지기 사옥에서 열린다. 오픈닝 행사는 9월 7일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